소년단

1960.4

마음의 고향 — 만경대

김 학연

만경대는 만경대는 아름다운 곳
기름진 옥토우에 뜨락또르 우르릉…
꽃나무 우거진 언덕 아래엔
대동강 푸른 물이 구비쳐 흐르네
강물엔 기계'배들 흥겨히 오가네…

만경대가 이다지도 아름다운 건
저 맑은 흐름에, 푸른 언덕에
어린날의 원수님 안타까이 꿈꾸시던
행복의 동산, 노래의 동산이
이 땅에 빛나게 꽃피는 까닭이네.

만경대는 만경대는 그리운 곳
흘러가는 강물의 노래'소리도,
가슴에 날으는 새들의 우짖음도,
푸른 숲에 설레이는 바람'소리도,
우리네 가슴에 가까이 들려 오네.

만경대가 언제나 마음에 그리움은
꽃피는 언덕에, 행복한 마을에,
어린날의 원수님 발'자욱 새겨지고
어린날의 원수님 숨'결이 살아 있어
우리네 마음의 고향인 까닭이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4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 5 회)

북조선 로동당 창립 대회 주석단과 당 대표자들

박 세 영

행복의 어머니 조선 로동당

당은 불 속에서 태여 났단다.
그래서 불처럼 뜨겁고 강철 같단다.
온통 붉은 기'발 같은 백두 밀림
원쑤와의 싸움에서 태여 났단다.

불 속에서 태여나 강철 같으니
당을 허는 놈, 탈쓰고 기여드는 놈,
그런 놈들이 덤비면 뭐하니,
조국이 나갈길 앞날을 보는 당앞에.

만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당,
착취와 가난을 원쑤로 치는 당,

그러기 로동 계급만이 아니라
《근로 대중에게 문을 열어주자.》

김 일성 원수께선 바른길 가르치셨단다.
같은 뜻을 가진 공산당과 신민당이
한 덩어리 되여 힘차게 나갈 것을,
그래서 강철 같은 로동당이 태여났단다.

불 속에서 태여나 불처럼 뜨거운 당
그 앞에 이아치는놈 모두 녹아버린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억세게 커가는 당
행복의 어머니 로동당은 태여 났단다.

반석 우에 선 인민 정권

반석처럼 다져 논 집터와 같이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모든 민주 개혁 펼치였다.
혁명의 길에서 저 할일 다 했다.

그러기 조선 로동당은
새로운 혁명 이룩 하며
웅장한 집 이 터에 세우게 했으니,
그것은 북조선 인민 위원회

로동 계급이 주인으로 된 이 정권은
공민이면 누구나 참견하는 정권,

썩어빠진 자본주의 나라들 같이
자본가, 지주들 탐욕쟁이가 없다.

모두다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참다운 정권,
이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의 대표로 이루어졌다.

미제와 역도들이 이 정권 해치려
미칠듯 날뛰였지만도,
인민이 받들고 뭉친 힘으로
인민 주권은 산악처럼 솟아났다.

당은 눈부신 민주 건설로

당은 눈부신 민주 건설로
우리 조국을 이끌었다.
오랜 날 왜놈들이 뿌려 논
악독한 착취의 자욱을 없애며.

아니 곰팡이 앉은듯
머리 속의 낡은 생각까지도,
당이 비쳐주는 눈부신 해'별에
깡그리 슬어져 날라 가도록

절름바리 같았던 왜놈들 공장이나마
제놈들이 부신것 우리 손으로 일으키며
모든 기업소, 상점들까지
착취없는 인민의 것이 되도록.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였더냐,
밖에선 원쑤들이 노리고, 안에는 종파 분자,
모두 헤살만 놓았 건만
1개년 인민 경제 승리했으니.

그렇다 이는 당의 가르침 따라
뭉쳐 나선 우리 근로자들이
《건국 사상 총 동원 운동》으로
혁명의 불씨 훨훨 타오른 때문이다.

① 원주의 눈 앞에는 자기의 위험 보다도 구원을 청하는 순길이의 애처로운 모습이 떠 올랐다. 원주는 그 어떤 비상한 결심을 하였다.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불타고 있는 집 속으로 뛰여 들어 갔다. 앞 뒤의 왜놈들이 뭐라 떠들며 불타는 집 앞으로 모여 들었다.

② 원주는 불타는 집 뒤로 총알처럼 달려 나왔다. 그는 어떻게 불 속을 헤치고 나왔는지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빨리 기숙사로 가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생각 뿐이였다.

③ 원주는 왜놈들이 날치는 거리 한판을 정신 없이 뛰여 갔다. 놈들의 떠드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도 들렸고 등뒤에서도 났다. 그러나 원주는 용감하게 놈들 속을 뚫고 거리를 넘어 섰다.

④ 원주는 불타는 기숙사로 달려 갔다. 어디선가 아이의 가냘픈 비명이 들려 왔다. 순길의 목소리였다. 원주는 불길에 휩싸인 문짝을 걷어차며 굴러 들어 가듯 방 안으로 달려 들어 갔다.

⑤ 《순길아! 순길아!》 원주는 방 바닥에 엎디려 기여 가며 소리쳤다. 뜨거운 열풍이 확확 얼굴을 때렸다. 문득 그의 손에 누군가 붙잡혔다. 기여 나오려고 애쓰던 순길이였다. 원주는 순길이를 붙잡기가 바쁘게 덥석 등에 업었다.

⑥ 원주가 순길이를 업고 기숙사에서 나왔다. 그때였다. 와르르 지붕이 무너 앉았다. 원주는 정신 잃고 늘어진 순길이를 업고 급히 산으로 올랐다. 뒤에서 총 소리가 들렸다. 원주는 뒤도 돌아 보지 않고 줄곳 앞으로만 걸어 나갔다.

⑦ 그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 왔다. 눈 앞은 안개에 덮힌듯 어슴푸레 해졌다. 마지막 용기를 내여 앞을 바라 보았을 때 자기 소대 아동 단원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 오고 있었다. 그때에야 원주는 담이 무너지듯 풀 속에 쓰러졌다.

⑧ 원주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날 새벽이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는 정치 위원과 만석이 그리고 유격대 의사가 앉아 있었다. 원주가 순길이를 찾자 정치 위원은 그를 자기 가슴으로 껴안듯 어루만지며 《걱정말아! 순길이는 무사하다! 원주야! 용하다! 너는 슬기로운 김 일성 장군의 어린 혁명 전사다!》하고 낮윽히 그러면서 힘 있게 말하였다.

⑨ 원주와 순길이는 가지런히 한 자리에 누워 사람들의 따뜻한 간호와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루는 정치 위원이 원주와 순길에게 먹음직한 귤 두 알을 가지고 왔다. 《원주야! 장군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선물이다!》하고 두 아이 품에 각각 귤 한알씩을 안겨 주었다. 싱그러운 귤 냄새가 훅 풍겨왔다. 순간 그의 두 눈에는 감격에 겨운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⑩ 원주가 열 다섯 살 나는 해 겨울이였다. 그는 당으로부터 지하 공작 임무를 맡고 떠나는 박 재관 형님과 부녀회원 옥순 누나들과 함께 처창즈를 떠났다. 이들은 한 가족인듯 가장하고 집단 부락에 들어 가게 되였다. 매서운 바람은 세 사람의 앞길을 막기라도 하려는듯 기승을 부리며 아우성쳤다.

⑪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 부락에 들어 온 세 사람은 곧 지하 조직과 련계를 맺고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밤마다 원주가 든 집으로는 몇몇 지하 공작원들이 모여 박 재관 형님의 지시를 받군 하였다. 그때마다 원주는 밖에서 망을 보군하였다.

⑫ 한 달이 지났다. 집단 부락에는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반대해 싸우라는 삐라들이 나붙었다. 이것은 지하 공작원들과 함께 원주도 한몫 끼워 밤마다 내붙인 삐라들이였다. 원주는 더욱 침착하고 대담해 졌다. 그는 밤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삐라를 붙인군 하였다.

(다음호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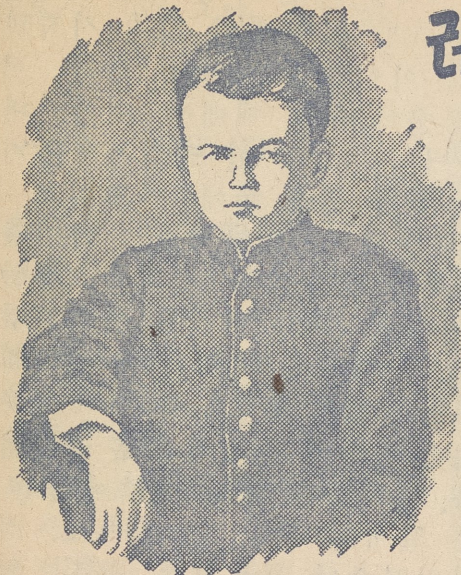
레닌 선생의 어린 시절

—레닌 선생의 일화중에서—

그림 최 순천

레닌 선생은 1870년 4월 22일에 씸비르스크 (현재 울랴놉흐스크)에서 탄생 하시였습니다.

레닌 선생은 위대한 쏘련 공산당의 조직자이시고 10월 혁명의 령도자이시며 세계의 6분의 1의 땅 우에 처음으로 사회주의 나라를 세운 온 세상 인민의 태양이십니다.

레닌! 그 이름만 불러 보아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서 끝없는 힘과 지혜와 희망이 용솟음쳐 오릅니다.

오늘 위대한 쏘련 인민들은 물론 온 세계 인민들은 레닌 선생이 열어 주신 빛나고도 황홀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꽃동산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앞날에 온 세상은 바로 레닌 선생이 가르치셨고 레닌 선생이 생각하신 대로 다시는 불행과 슬픔을 모르는 영원한 땅 우의 락원으로 꽃필 것입니다.

레닌 선생이 탄생하신지 90 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끝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레닌 선생을 그려 봅니다.

레닌 선생이 걸어 오신 길, 레닌 선생이 남겨 주신 가지가지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들 가슴마다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위대한 레닌 선생의 어린 시절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시다.

물에 빠친 신

레닌 선생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월로쟈라고 불렀습니다. 월로쟈는 키는 자그마했지만 그러나 단단한 몸'집에 머리칼이 빛나고 눈도 역시 빛났답니다. 그는 언제나 용감하고 활발 했고 모든 일을 끝까지하며 놀기도 또한 잘했지요.

월로쟈는 해마다 여름이 오면 고쿠쓰키노브 촌에서 즐거운 방학의 한때를 보내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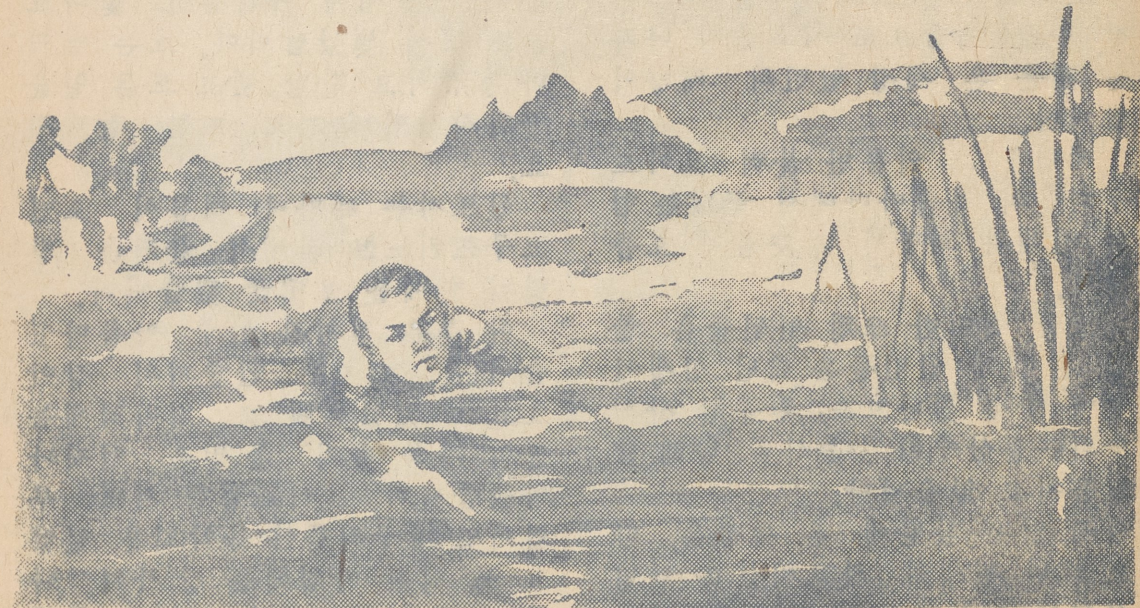
이 촌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한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는 풀이 가득 깔려 물'빛은 언제나 파랬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면 개구리들이 음악회를 열었고 또 이른 아침에는 강'가의 나무 우에서 꾀꼬리가 노래를 불렀

지요.

어린이들은 이 강'가에서 놀기를 즐겨 했답니다.

그러나 월로쟈와 그의 이모 사촌 형제들은 헤염 칠 줄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흔히 얕은 여울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물싸움을 하며 놀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물만 흐려 놓는 새끼 개구리》라고 놀려 주었지요. 이 이름은 월로쟈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월로쟈와 그의 이모 사촌 형제들은 열심히 헤염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월로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염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재주까지 배워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 였지요. 아이들은 강'가에서 깨진 낡은 배 한척을 얻었답니다. 십여 명의 아이들은 한나절이나 걸려서 가까스로 배를 물 우에 띄우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좀 깊은 여울에서 그만 배가 깔아 앉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제마끔 자기 신발을 줏어 들고 배에서 뛰여 내렸습니다. 그만 한 아이가 덤비다가 한쪽 신을 물에 빠뜨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그애를 동정하여 신발을 찾았으나 끝내 찾아 내지를 못하였답니다. 아이들은 더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단념했지요. 그러나 월로쟈만은 계속 물 속에서 신을 찾았답니다. 아이들은 흙탕 물속에서는 신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굳이 말리였으나 월로쟈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결심만 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월로쟈는 계속 자맥질을 해서 다섯 번만에는 끝내 신발을 찾아 내고야 말았답니다.

월로쟈는 물 속에서 신을 찾아 내기 전에는 잠시도 쉬지 않았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한번 결심한 일

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았답니다.

《오늘도 5점입니다.》

월로쟈는 다섯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글 읽기를 배웠답니다.

어린 월로쟈는 항상 공부하기를 즐겨했고 책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월로쟈가 소학교를 다닐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면 자기 방문 앞에서 그날 학과 성적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규률을 세워 놓았답니다.

월로쟈의 동생들도 모두 공부를 잘하는 편이였으나 그러나 아버지 방문 앞에서의 보고는 보통 5분 이상이 걸리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로쟈만은 늘 일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월로쟈는 《오늘도 모두다 5점 입니다.》 하면 그만이 였기 때문이지요.

1879년에 월로쟈는 중학교에 입학 하였는데 여기서도 내내 최우등으로 일등을 하였습니다.

월로쟈는 복습을 꼭꼭했고 동무들의 공부를 늘 잘 도와 주었습니다.

월로쟈는 당시 로씨야의 훌륭한 작가들이 쓴 문학 작품들을 사랑했고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훌륭한 영웅들을 그린 작품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이처럼 공부를 잘한 월로쟈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벌써 라틴어, 불란서어, 독일어들을 완전히 배워 냈습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월로쟈의 6 남매는 일찌기 죽은 누이 한분을 내놓고는 모두 혁명가였습니다. 월로쟈가 가장 사랑하던 맏형 알렉싼들은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월로쟈가 17 세 나던 해인 3월 1일 맏형 알렉싼들은 뻬쩨르부르그에서 있은 짜리 알렉싼들 3세를 없애치우기 위한 사건에 참가한 죄로 체포되였습니다. 그리

하여 그는 5월 8일에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의 월로쟈의 태도는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월로쟈는 맏형의 영웅다운 마음에는 머리를 숙여 존경했지만 그러나 그의 개인의 힘으로 짜리를 뒤엎으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월로쟈는 맏형이 사형당한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나가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월로쟈는 대중의 힘으로써만 짜리를 뒤엎고 혁명에서 승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린 월로쟈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위대한 레닌 선생은 몇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수많은 로동 계급을 깨우쳐 그들을 싸움에로 불러 일으켜 마침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맏형을 잃은 월로쟈는 슬픔을 참아 가며 마음을 가라앉혀 며칠 후에 시작된 졸업 시험도 훌륭히 치러 금메달을 타고 중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레닌 선생은 벌써 짜리를 뒤엎고 못살고 천대 받는 로동자, 농민을 해방하는 투쟁에 자기의 일생을 바칠 것을 굳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결심 대로 일생을 로동자, 농민을 해방하는 투쟁에 바치셨습니다.

꼬마 기사

나는요 꼬마 기사
무슨 꼬마 기사냐?

산마다에 경제림
공원엔 나무 심어
푸른 락원 꾸리는
꼬마 림업 기사지

나는요 꼬마 기사
무슨 꼬마 기사냐?

한손에는 스파나
다른 손엔 망치
꼬마 기계 조립 명수
꼬마 기계 기사지

나는요 꼬마 기사
무슨 꼬마 기사냐?

실습지에 옥수수
목화꽃 피우는
실험 포전 잘가꾸는
꼬마 농업 기사지

나는요 꼬마 기사
무슨 꼬마 기사냐?

소년단 꼬마 목장
귀여운 토끼 기르는
꼬마 토끼 사육공
꼬마 축산 기사지

나는요 꼬마 기사
무슨 꼬마 기사냐?

공산주의 우리 락원
아름답게 건설할
지상 락원 설계하는
꼬마 설계 기사지

평남 강동군 하리 중학교
2의 2반 김 인정

—한 혁명 투사의 이야기—

글 원도흥 그림 김덕상

쏘만 국경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적의 후방로를 끊으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인민 혁명군의 한 습격조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소조원은 네 명이였다.

그 때 내가 데리고 간 소조원 가운데에 김 명철이라는 아직 어린 대원이 있었다. 솜털이 보르르한 붉은 볼이라든가, 발가우리한 엷은 입'술이라든가 누가 보나 귀여워할 그런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벌써 수십 차례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원쑤들도 수많이 죽이였다.

명철이가 처음 유격대에 들어 왔을 때 그는 자기가 죽인 왜놈들의 수'자를 조그마한 수첩에 적어 넣고 부대 아저씨들에게 어떤 싸움에서 자기는 어머니의 원쑤를 몇 놈 갚았다고 자랑하군 하였다. 그러나 전투가 수없이 진행되고 그가 갚은 원쑤도 많아지게 되면서 어느새 없어 졌는지도 모르게 자랑이 잦아 들고 말았다. 그래서 대원들이

《요새 어머니 원쑤 잊었는가?》

하고 롱담삼아 물으면 명철이는 빨쭉웃으며

《아니야요. 그저 말만 안할 뿐이지요.》

하고 대답하군 하였다.

솔직한 대답이였다. 전투 때마다 무데기로 쓰러눕히는 원쑤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전투가 끝나면 언제나 품안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내 들고 어머니의 원쑤를 몇놈 갚았다는 것을 꼭꼭 적어 넣었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 사모치는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명철이 어머니는 우리 유격대 대원들이 잘 알고 있는 조국 광복회 회원이며 부녀회 회원이였다. 나도 그가 걺어 지고 온 인민들의 선물을 여러 번 접수한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가 지고 온 힘에 겨운 짐을 받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아주머니가 이걸 지고 어떻게 이 멀고 험한 산'길을 오셨수?》

그러나 명철이 어머니는 도리여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

지고 오구 싶은 욕심이 나지만 내 기운이 모자라서 요것밖에 지고 오지 못했수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그 후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이러던 어머니가 왜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소식이 왔다.

우리 인민 혁명군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혁명 임무로 생각하고 먹을 것을 아껴여 숨겨 두었던 식량이 왜놈들에게 발각되였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무고한 인민을 붙잡아다가 빨찌산들에게 식량을 보낸다고 패고 때리고 하는 판인데 바로 빨찌산에게 보낼 식량을 감추다가 놈들에게 들켰으니 빠져날 구멍이 없었다.

왜놈들은 명철이 어머니를 끌고 마을로 돌아 다니면서 빨찌산과 련계를 맺고 있는 자는 이렇게 죽인다고 인민들을 위협 공갈한 끝에 마을 한 복판에서 총살했다는 것이였다.

이렇게 왜놈들 손에 어머니를 잃은 명철이는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다고 우리 유격대로 찾아 왔다.

명철이는 부대로 들어오자부터 대원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왔다. 그것은 명철이가 나이 어리고 귀엽게 생긴데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도 전투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부러우리만큼 싸움을 잘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그 때 중요한 임무를 맡고 가면서도 나는 명철이를 빼놓지 않았다.

우리네 대원은 일주일 동안을 동만의 그 험한 밀림을 헤치고 행군을 하였다.

한 10년 가까이 간고한 유격 투쟁에서 단련된 우리들은 이만한 행군쯤은 아무 것도 아니였다. 다만 토벌대놈들의 무시무시한 경계망을 뚫고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는 것만이 문제였다.

밤이 되면 험한 산 속의 가을 날씨는 매우 추웠다. 그러나 우리는 우둥'불은 커녕 모닥'불도 피울 수가 없었다. 깊은 산 속까지 토벌대놈들이 들어 와서 여기저기 우둥'불을 피워 놓고 경비를 서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레'만에 우리는 무사히 행군을 끝내고 우리가 목적한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우에 올라 섰다. 은띠를 풀어 놓은 듯한 강'줄기를 따라 뻗어 있는 철길이 망원경을 꺼꾸로 대고 보듯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다.

《바로 저기요.》

나는 철길과 강'줄기가 합친 한 지점을 가리켰다. 거기서 철'길은 철교를 타고 강 저쪽으로 건너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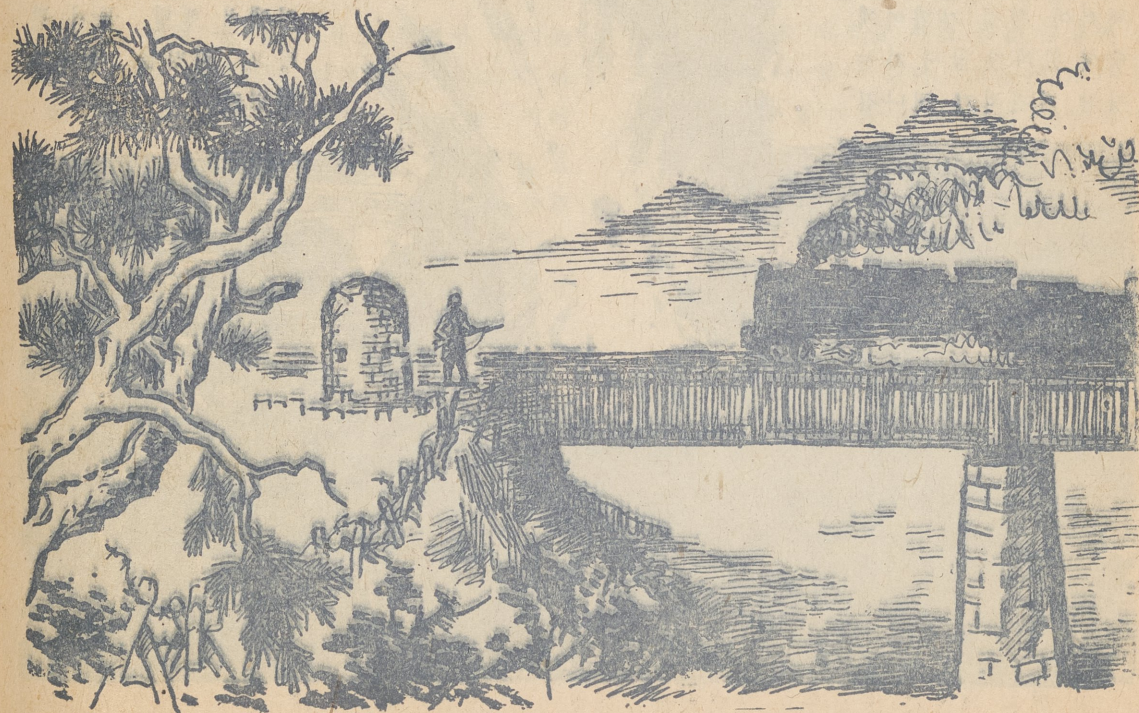
《저걸 뭉청 끊어 놓으면 수 개월 동안은 놈들의 군용 렬차가 건너 가지 못할 거요.》

나는 당장 끊기라도 할듯이 오른 손을 머리 우에 쳐들었다가 내리치면서 세 대원에게 말하였다.

《한 번 또 속 시원하게 해 봅시다.》

세 대원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나를 쳐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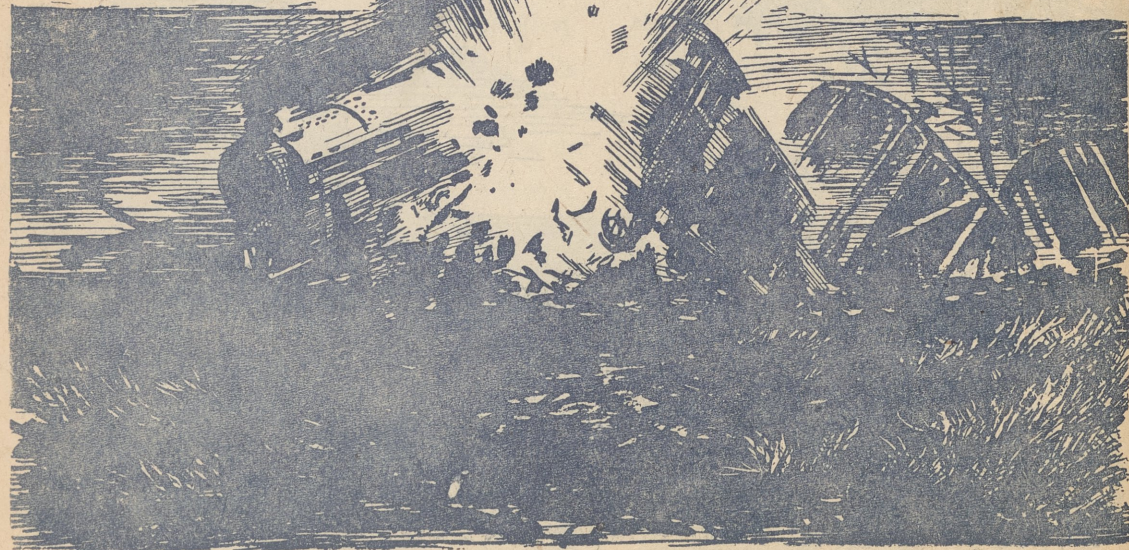
나는 곧 정찰을 파견하였다. 정찰을 나갔던 명철이와 또 한 대원은 어두워서야 돌아 왔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놈들의 군용 렬차가 다섯이 국경을 향해 갔고 넷이 나왔다. 거의 한 시간에 하나씩 국경을 향해 갔다.

두 동무가 정찰해 온 보고에 의하면 1 개 소대 가량의 철도 경호대놈들이 철교 바로 밑에 가병사를 짓고 살면서 출창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것이였다.

보초막은 철교 이쪽에 있는데 언제나 한 놈은 철교 가운데에 들어 가서 서 있다는 것이다. 그 놈도 기차가 올 시간이 되면 보초막이 없는 저쪽 철교 입구로 건너가 있다가 지나간 후 다시 철교 가운데로 들어 가는데 그 시간이 대체 10 분 내지 15 분이 걸린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이쪽 보초막에는 언제나 고정 보초가 서 있고 기차가 올 시간이 되면 신호 기'발을 든 철도국놈과 칼찬 일본 헌병이 보초막에 나와서 기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다가 들어 간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보초막에는 기관총까지 걸어 놓고 있다는 것이였다.

두 동무는 매우 세밀하게 정찰을 해 왔다. 우리는 두 동무의 정찰 보고에 의해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보통 군사 상식으로서는 네 명으로 중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적 1 개 소대를 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거기에다 적을 칠 뿐만 아니라 놈들이 지키고 있는 철교를

콩강뎅이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혁명 임무를 해 내야 하며 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는 1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두고 그런 싸움을 해 온 것이다.

우리는 유도 작전 계획을 세웠다. 우선 두 동무가 철교에서 1 km 떨어진 이쪽 지점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적의 군용 렬차를 폭파시키여 철교에 집중되여 있는 적의 병력을 유도해 낸 다음 적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두 동무가 철교를 폭파하기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지나가는 적 군용 렬차를 전복 또는 폭파시킨 경험은 많았다. 특히 내가 데리고 갔던 두 대원은 그 일에는 아주 능수였다. 적하면 우리에게 녹아나는 적들은 반드시 군용 렬차가 지나가기 전에 무시무시하게 장비한 기관차를 앞세우고 다니는 것이였다. 때문에 군용 렬차를 전복시키거나 폭파 시킨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였다. 철도를 지키고 있는 경호대놈들의 눈을 피하여 철길 가까이에 숨어 있다가 앞서 가는 장갑 기관차가 지나간 다음 2~3 분 사이에 철길을 파괴하거나 폭발물을 장약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동무는 힘든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패해 본적이 없는 동무들이였다. 그래서 나는 두 동무에게 적의 군용 렬차를 폭파시키고 다리 밑에 있는 적들이 폭파된 렬차쪽으로 몰려 가도록 유도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 나와 명철이는 철교를 폭파할 임무를 맡고 수비막이 없는 강 건너쪽 다리목 가까이 가서 매복하였다.

일은 계획 대로 순조롭게 진척되여 나갔다. 밤 세 시, 철교를 향해 달려 오던 적의 군용 렬차가 산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을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 올라 갔다. 그러자 다리 밑의 병사가 마치 벌의 둥지를 쑤셔 놓은 듯이 발칵 뒤집혀졌다. 잠자던 경호대놈들은 얼결에 밖으로 뛰쳐 나와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야단법석을 하였다. 어떤 놈들은 덮고 자던 모포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한 자리에서 뱅뱅 돌며 뭐라고 비명을 올리고 있었다.

군용 렬차에 가득가득 실었던 놈들의 포탄은 연속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였다. 그야말로 수라장이 되였다.

놈들의 비상 경보가 처성맞게 울리고 칼을 때찬 헌병들이 병사 밖으로 뛰쳐 나와 서성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는 경호대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빠가야로! 뭣들 하는가 빨리빨리 총 가지고 나왔》

일본 헌병의 표독스러운 호령에 경호대놈들이 병사 안으로 몰려 들어 갔다. 그리고 총들을 쥐고 뛰여 나와 헌병놈 앞에 렬을 지어섰다.

일본 헌병은 대렬이 정렬되자

《급보로 갔!》

하고 대렬 맨 앞에 서서 포탄이 터지는 쪽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 갔다. 그의 뒤로 총을 멘 검은 그림자들이 줄을 지어 우줄우줄 따라 갔다.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다리 이쪽으로 건너 오던 경호대놈도 폭발이 일어 나자 되돌아 서서 황황히 수비막이 있는 저쪽이로 건너 갔다. 우리는 그놈을 처치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일에 착수하게 되였다.

건너 오는 경호대놈을 처치하려고 다리목 아래에 납작 엎디여 있던 나는 철'둑 밑을 향해 손 신호를 하였다. 이윽고 명철이가 폭발물을 안고 기여 올라 왔다. 나는 그에게서 폭발물을 받아 안고 다리를 보았다. 다리는 텅 비여 있었다. 다리 저쪽 끝은 어둠에 싸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 좋은 기회였다.

나는 철'둑에 엎디여 있는 명철에게 따라 오라는 손 신호를 하고 몸을 일으켜 철교 우로 달려 들어 갔다. 그런데 내가 철교안으로 몇 발'자국 뛰여 들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 났다. 갑자기 눈부신 탐조등 불'빛이 내 눈을 쏘고 뒤'이어 요란한 기관총 소리가 일어 났다.

(아차 이놈들의 꾀에 넘어 갔구나.)

하는 생각도 다 하지 못하고 나는 정신이 팽그르르 돌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쓰러지면서 얼핏

《아저씨》

하고 명철이의 쇠된 고함 소리를 듣고 나를 부축하는 그의 손'길의 감촉을 느꼈을 뿐 그 후는 어떻게 되였는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호에 계속)

나의 일기장에서

9 월 23 일

제 1 분단 위원장의 이야기는 나를 또 걱정에 잠기게 했다. 요즈음 유 창복이가 뜨문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동무들이 데리려 가서야 마지못해 학습장만 몇권 둘둘 말아서 꽁무니에 차고 왔다가 두 시간을 마치고는 슬그머니 빼졌다는 것이다. 왜 그는 학교와 동무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동무들과 의논해 봐야겠다.

9 월 24 일

대 열성자들과 토론해 보았다. 창복이에 대해 생각하는 점들은 서로 달랐다. 어떤 동무들은 창복이는 학교에서도 제일 큰 애인데 공부를 못한다고 모임에서나 벽보를 통하여 자꾸 핀잔만 주기 때문이라고, 또 어떤 동무들은 창복이는 부모도 없고 몇살 우인 누이와 단 둘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멋 대로 자라는 탓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나는 분단 위원장 리상규 동무에게 분단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욕만 하지 말고 친절히 도와 주라고 했다. 그리고 열성자들이 한 번 모여 앉아 창복이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9 월 26 일

오늘 1분단 열성자들은 창복 동무를 돕기 위해 모여 앉았다.

《창복 동무는 공부하는데 제일 곤난한 것이 무엇이예요.》

《우리가 도와 줄터이니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 해 주어요.》

열성자들은 여러 가지 물었다. 그러나 창복이는 얼굴을 딴 곳으로 돌리고 비웃는 듯 입만 비죽 거리고 있을 뿐 대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너희들은 누구를 심사하는 셈이냐?》고 반문하고는 홀떡 일어서서 나가 버렸다.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왈칵 성을 내여 《창복 동무, 창복 동무…》 하고 부르며 뒤쫓아 나갔다. 그러나 곧 《조용히 만나서 의견을 들었서야할 것을…》 하고 자신을 뉘우치며 돌아 섰다.

10 월 3 일

나는 창복이네 집을 찾아 갔다. 그는 내가 찾아 간 것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말을 그만 두기로 하고 학습을 돕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도리머리를 하였다.

10 월 4 일

공부를 마치고 1분단 위원장과 함께 소년단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복이와 열성자들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를 사랑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의 취미와 요구를 알아내여 그에 맞게 일을 조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함만을 들추어 내여 욕만 하지 말고 그한테서 좋은 점을 찾아 내여 그것을 칭찬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복이가 동무들을 더 없이 사랑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무들이 주는 충고도 잘 받아 들일 것입니다.》

10 월 6 일

창복이는 본래 배구를 잘했다. 오늘 대 위원회에서는 창복이를 군에서 조직하는 군내 각 학교 배구 경기에 참가할 우리 학교 배구팀 주장으로 결정했다. 배구는 잘 하지만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락후한 창복 동무에게 주장을 맡긴다고 반대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10 월 10 일

군내 각 학교 배구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의 영예를 쟁취 했다. 그래서 대 벽보 편집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것을 특집했다. 벽보 내용에는 배구 주장 창복이를 높이 칭찬하는 글이 크게 자리를 차지했다.

10 월 25 일

금년 봄 김 일성 수상께서는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다. 수상님께서는 새로 지은 우리 학교를 돌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학교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가르치시였다. 전체 동무들이 나무 심기에 떨쳐 나섰다. 1분단에서는 나무 심기를 잘하기 위해서 몇 사람씩 반을 무어 주었다. 그리고 창복에게 한 반을 책임지웠다. 이 일에서 창복이는 아주 열성을 내였다. 그래서 창복이네 반이 제일 우수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오늘 창복이를 분단 대렬 앞에서 찬양해 주었다.

11 월 5 일

차츰 창복이에게 학교에 대한 사랑이 높아 가는 것 같다. 요즈음에 와서는 결석이나 시간중 빼손이 치는 일이 아주 드물어졌다. 그러나 아직 공부에 열성이 없다. 나는 오늘 1분단 위원장과 함께 조용히 창복이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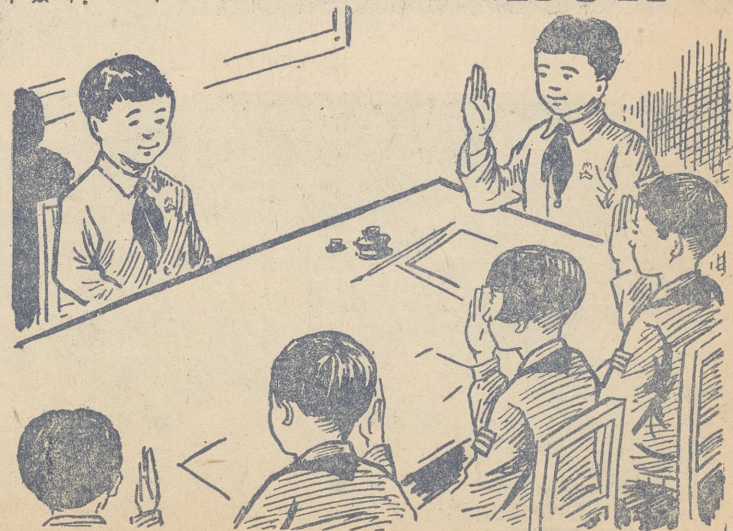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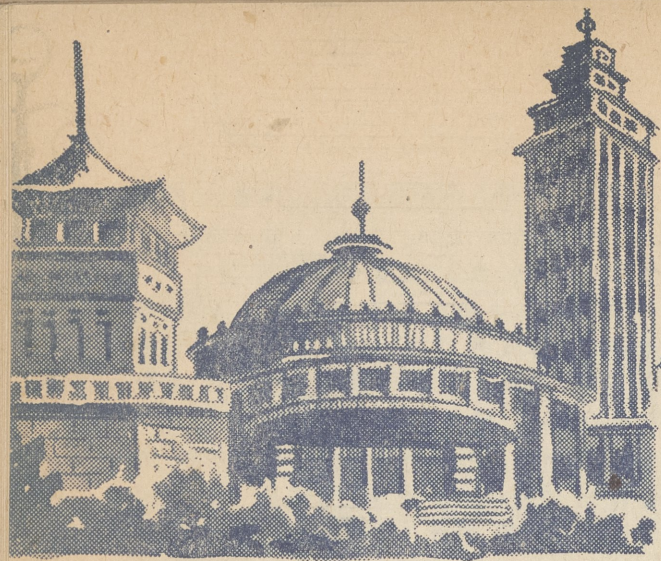
《창복아, 우리에게 못할 말이 무엇 있겠니, 학습에서 모를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 보라, 우리는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는지 모르겠다. 특히 너는 아버지, 어머니를 원쑤놈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니, 바로 이 원쑤를 갚는 것이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돌아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만 너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신단다. 그런데 넌 공부엔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니 웬일이야…》

창복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듯 했다.

2 월 5 일

요즈음 창복이는 학습 문제를 가지고 열성자들에게 자주 찾아 왔다. 그는 나에게도 뜨문히 찾아 온다. 이런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있는 힘껏 도와 주군한다. 그는 요즈음 분단에서 하는 일에도 열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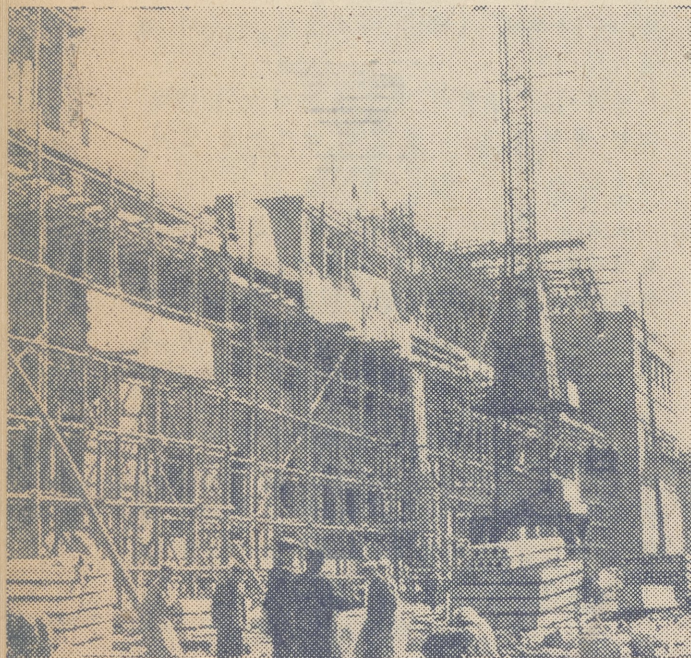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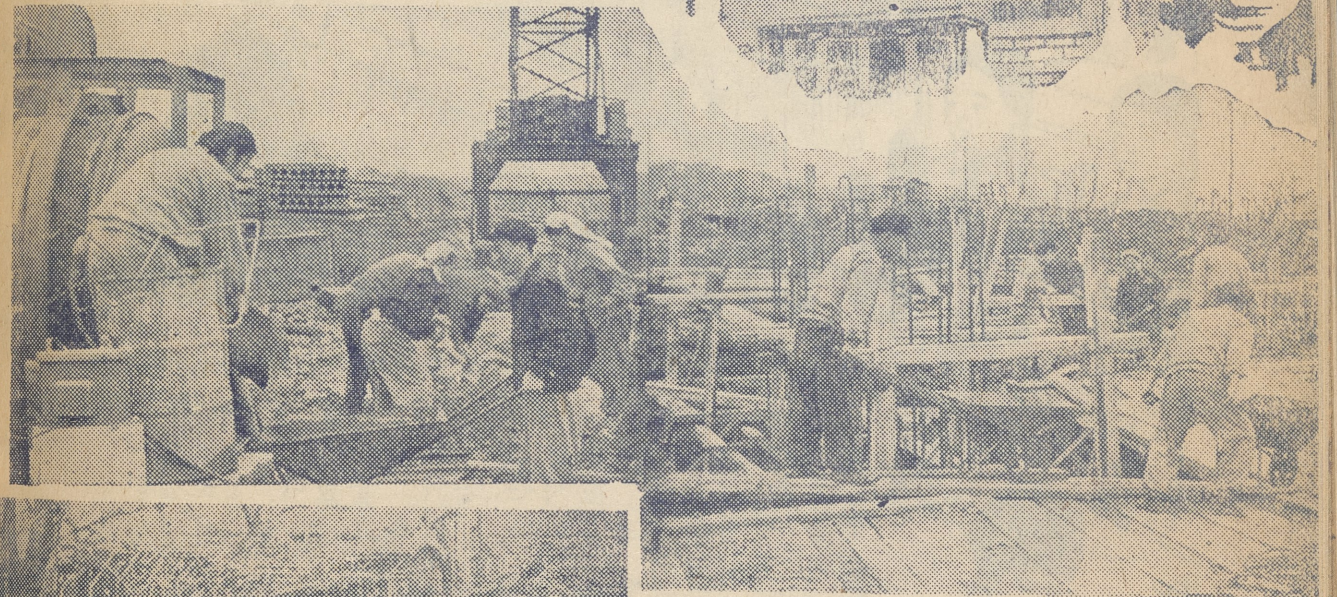
오늘 대위원회에서는 창복이를 높이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영예스러운 민청에 가맹하겠금 보증을 서 달라는 그의 요구대로 대위원회는 그의 민청 가맹을 보증하였다.

황남도 신천군 새길 중학교 대
위원장 황 춘길

평양은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진다!

8. 15 해방 15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기위하여 지금 평양은 건설의 노래로 들끓고 있습니다. 건설자 아저씨들을 도와 대학생 형님, 누나들도, 정무원 아저씨들도 건설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민주 수도 평양을 록음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자!》 소년단원들도 이렇게 웨치며 민주 수도를 아름답게 꾸리는 일에 떨쳐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8. 15 해방 15주년을 맞는 평양은 영웅조선의 민주 수도 답게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려지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대극장, 손님마다 독서실과 응접실을 가지게 되는 평양 호텔, 제 2 대동교, 국립 해방 투쟁 박물관, 국립 미술 박물관, 아동 백화점, 옥류정, 곡예극장, 대 영화관, 소년궁전, 1만 2천여 세대의 문화 주택들……새로 건설되는 건설장을 꼽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듯 조국의 수도 평양은 시간마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해 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리 종 록

← 인민군 거리와 쓰딸린 거리 사이에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2,000석의 자리를 가진 웅장하고 화려한 대극장이 일어서고 있다.

← 대동강에는 길이 680메터, 너비 28.5메터나 되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다리—제 2 대동교가 만들어 지고 있다.

↑ 2만 5천 평방메터도 넘는 넓은 터전 우에 11층의 탑을 가진 웅장한 소년 궁전이 건설된다. 이 웅장한 건물 안에는 90 개도 더 되는 각종 크루쇼크실, 1,500 명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 극장, 1,500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신년 축하 모임 대홀이 갖추어 진다. 지금 건설자 아저씨들은 하루속히 이 웅장하고 화려한 소년 궁전을 소년단원들에게 지여주기 위하여 일'손을 재이고 있다.

← 8. 15 해방 15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민주 수도 건설 관계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도 《록화 근위대》의 역할을 높이여 공원과 록지와 나무와 화초를 정성 드려 심고 가꾸며 보호하라고 하였다. 평양 종로 중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이 부름을 받들고 민주 수도 평양을 록음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자고 하면서 대동강 유보도 공원을 가꾸는 일에 떨쳐 나섰다.

평양 서문 중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자주 건설장에 나가 무용과 노래로서 건설자 아저씨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

—자강도 희천군 희천 고급 중학교 대 10분단에서—

최 옥 선

공부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교실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다. 이슥고 력사 선생님이 들어 오시였다.

선생님은 먼저번 시간에 배운 문제들 중에서 3. 1 운동 때 사회 형편과 인민들의 형편에 대하여 동무들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들은 일제히 손을 든다.

선생님은 정희를 지명했다.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척척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정희가 훌륭히 대답했다고 학급부에 5점을 맥이시였다.

그럼 정희 동무는 어떻게 45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가?

하루의 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오면 정희는 다음날의 시간표를 놓고 차례차례 학습을 한다.

이제 정희가 이날 력사 시간을 위해 어떻게 학습하였는가를 보자.

먼저 선생님이 학습 시간에 내준 숙제를 하였고 숙제를 잘 하기 위해서 학습 시간에 필기한 학습장과 력사 책을 몇번 곱씹어 읽고 답을 썼다. 그는 답을 쓸때 책과 학습장을 접어 놓고

머리 속으로 생각해서 썼다.

다음은 다시 복습을 시작하였다. 먼저 시간에 배운 문제를 빠짐없이 알기위해 노력하였다. 력사에 나오는 년대, 지명, 사람의 이름까지도 차근차근 외웠다.

그는 복습을 끝내기 전에 여지껏 익힌 문제들을 다시 한번 머리 속에 그려 보았다. 생각해 내려가다 막히는데가 있으면 다시 학습장과 교과서를 펼쳐들고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잘 리해 되지 않는 것들은 빠짐 없이 수첩에 적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한번 자기가 선생이 되여 설명을 해 본다. 그는 흔히 이것을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옛'말식으로 이야기 해주었다. 아이들이 재미 있게 들으면 자기가 완전히 리해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직 채 알지 못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더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잡지나 책에 나온 3. 1 운동 이야기, 3. 1 운동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었다.

다음은 3. 1 운동이 어떻게 끝났는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교과서를 펼쳐들고 다음날 배울 문제를 읽었다.

정희는 이튿날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가 하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누웠다.

이렇게 준비하는 정희가 45분의 수업 시간을 헛되히 보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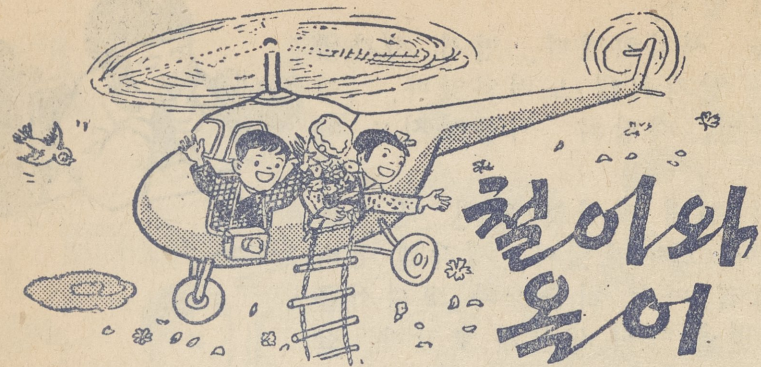
학습 준비를 항상 잘하고 45분 학습에 참가하는 정희는 지금까지 내내 최우등의 성적으로 공부해 왔다.

파릇 파릇 잔디 밭에
새움 돋고요
앞산 뒤'산
뻐꾹이가 노래 할 때면
우리들은 밭마다
곱고 고운 꽃씨를 뿌리죠.

돌돌돌 시'내물이 노래를 하고
잔고기 떼 꼬리 칠 때면
우리들은 모두 모여
양어장을 만들죠.

팔랑 팔랑 나비들이
꽃님 찾아 들 때면
우리들은 모두 모여
곤충 채집 하지요.

황남 청단군 직천리 최 경춘

철이와 옥이

철이—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이번에 수정같이 맑은 청천강 물'결을 따라 회천을 향해 날아갔지요.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자고 한 조선 로동당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들에게 맛 좋은 반찬들을 만들어 보내는 회천 식료품 공장을 동무들에게 알려 드리려구요.

우리가 회천 하늘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별안간 옥이가 시내 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상점을 가리키며 그곳부터 가 보자고 하지 않겠어요.

옥이—내가 상점부터 들리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예요. 우리가 회천의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상점에서는 저자바구니를 든 어머니들이 무엇을 사가지고 나오시고 있었는데 아주 만족한 얼굴로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지요. 자세히 보니 회천 식료품 공장 직매점이였거든요.

우리가 상점 앞으로 갔을 때 마침 붉은 넥타이를 봄'바람에 팔랑이며 소년단원 한 명이 달려 왔지요.

《나는 〈소년단〉의 옥이야 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소년단원이냐?》

《아이! 참 반갑구나, 네가 우리 회천에두 왔구나, 난 회천 고중 초급반 강호영이야 그래 어떻게 여길 다 왔니?》

《식료품 공장 소식을 전하려구!》

《그래! 그럼 식료품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니 한테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가거라 저기 직매점 안에서 물건 다루는게 바로 우리 어머니야,》

《그래? 아이 참 마침 잘 됐네.》

《식료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가끔 이렇게 상점에 나와서 물품을 파는데 인민들이 어떤 반찬들을 더 찾구 또 좋아하는가를 알아 보려구 하는거란다.》

우리는 호영이를 따라 상점 안으로 들어 갔어요.

수십가지의 산나물 반찬, 고기로 만든 반찬, 청천강 물'고기로 만든 반찬, 채소로 만든 반찬,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인자한 호영이 어머니는 반찬을 사려온 손님들의 의견을 차근차근 수첩에 적어 넣는 것이였어요.

이때 호영이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우리를 소개했지요.

《너희들이 철이와 옥이냐? 우리 호영이에게서 말은 많이 들었다》 하시며 호영이 어머니는 우리를 반가히 맞아주셨지요.

호영이 어머니는 공장 이야기를 한참 들려 주시더니 호영이더러 우리를 공장까지 안내해 주라고 하시는 것이였어요.

우리가 호영이와 같이 식료품 공장에 이르렀을 때예요. 식료품 공장 동쪽 산'기슭에는 돼지우리들이 줄지여 있었어요. 그 우리 안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꿀꿀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식료품 공장에서 직접 기르는 것이였어요.

그리고 공장 둘레 산 언덕들에도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와 밭을 일쿠고 있겠지요. 그래 호영이더러 산에 밭을 일쿠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고사리산, 도라지산, 버섯밭들을 만든다는 것이였어요. 공장 앞을 흐르는 개울가에는 미나리밭도 일쿠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공장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들 손으로 직접 산채를 심고 돼지를 길러서 반찬을 만드는 것이 였어요.

우리가 감탄하는 바람에 호영이는 신이 나서 말했지요.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을 힘껏 돕고 있단다. 우린 작년 가을엔 등산을 조직해서 공장에서 필요한 산나물, 도라지, 기름을 짜는 분지씨, 머루, 뜰광, 아광 등 많은 산 열매를 따다 드렸단다. 그리구 우리 녀자애들은 때때로 여게 실습나와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배우면서 일을 돕기도 한단다.》

호영이는 우리들을 과자 만드는 곳과 산나물 반찬 만드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호영이는 문을 열기가 바쁘게 《얘들아! 철이와 옥이가 왔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였어요. 그러자 흰 위생복을 입은 회천 고중 가사 써클원들이 우르루 우리를 둘레 싸는 것이 였어요.

《철이 동무! 옥이 동무!》하고 저마다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 공장 생산 지도원 아저씨를 찾아 갔어요. 생산 지도원 아저씨는 이 공장 아버지, 어머니들이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더 맛좋고 더 많은 반찬을 만들기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반죽 기계, 무 써는 기계 등 많은 기계를 창안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어요.

우리는 생산 지도원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간장 만드는 곳, 시롭 만드는 곳, 골고루 다 가 보았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 마다에는 인민들을 위해 일하는 큰 자랑으로 가득차 있었어요.

이곳 소년단원들도 올해는 더 많은 산나물, 산 실과를 따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힘껏 도울 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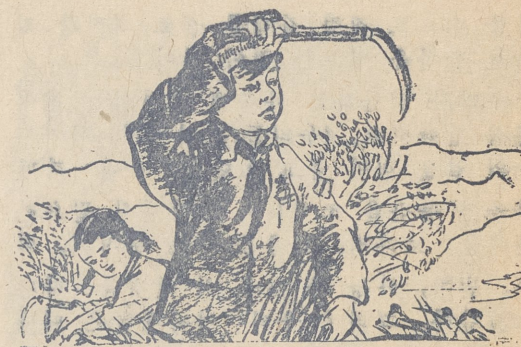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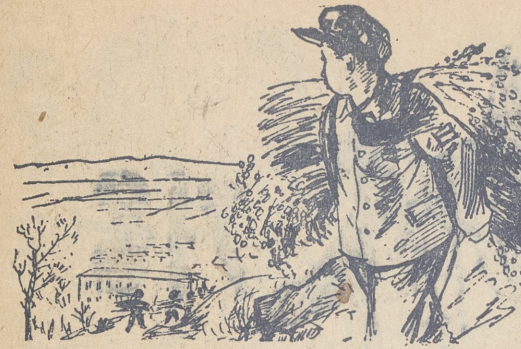
우리는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눈부시게 일하고 있는 회천 식료품 공장을 구경하면서 우리 살림이 자꾸만 늘어가는 흐뭇한 기쁨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① 분단 열성자인 흥서는 분단 위원회의 위임으로 말성을 부리는 영희를 돕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모범으로 영희를 피양주고 있었다. 이날도 흥서는 뽈 차러간 영희를 대신하여 그의 토끼 사료까지 정성껏 마련해 주었다.

② 공을 실컷 차고 난 영희는 게시판에 나붙은 새소식을 읽었다. 래일 학원에 이동 영사대가 온다는 소식이였다. (래일 분단에선 토끼사를 지을 싸리를 베려 '봉'골산으로 갈텐데 자칫하면 구경도 못할게 아닌가!)

③ 다음날 영희는 4시간째부터 피병을 해서 수업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영희를 항상 걱정하고 있던 흥서가 쉬는 짬에 생활실로 갔을 때 심심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던 영희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며 앓는 소리를 냈다.

④ 흥서는 몹시 걱정하여 영희의 머리도 짚어 보며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 보기도 했다. 흥서는 영희가 정말 아파서 그러는 줄만 알았다.

⑤ 이날 흥서는 방과 후부터《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의 도표를 그릴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흥서는 생각하였다. (영희는 내가 맡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까지 빠진다면 우리 분단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흥서는 도표는 밤에 그릴 셈 치고 아이들을 따라 나섰다.

⑥ 흥서는 영희의 몫까지 하노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리를 베기 시작했다.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굴송굴 맺혔다.

⑦ 흥서가 베놓은 싸리 묶음은 분단에서도 제일 컸다. 동무들이 나눠 가지고 가자는 데도 그는 듣지 않았다. 산'비탈을 내려 오는 흥서는 휘청거리기까지 했다.

⑧ 이날 작업에서 돌아 온 흥서는 곧 영희를 찾아 갔다. 그러나 영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구경을 간 것이였다. 흥서는 영희가 병이 더하여 병원에 간 줄 알고 걱정 하였다.

⑨ 깊은 밤 응천이가 흥서를 찾아갔다. 도표를 다 그린 그는 포근히 잠들고 있었다. 응천이는 흥서의 머리 맡에서 일기책을 발견하였다. 《영희의 몸은 어떠한지, 그런데 영희가 영화를 보더라는 보모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⑩ 다음날 분단 모임에서 분단 위원장인 응천이의 눈엔 눈물이 글성했다. 《우리는 동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흥서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흥서는 영희를 위해 산에 갔고 그때문에 밤을 새우며 도표를 그리게 되였습니다. 이런 때 영희는 구경을 했습니다.》

⑪ 덤덤히 앉아 있던 영희는 더는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는 학교 뒤'울안에 서 있는 살구 나무에 기대여 어깨를 들먹거렸다. 흥서도 뒤따라 나섰다.

⑫《흥서야 날 용서해 난 정말 바보였어.》 영희는 흥서를 덥석 껴안았다. 영희의 눈에선 이슬이 반짝이였다. 흥서는 힘껏 영희를 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끝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다.

내 동생처럼

《이번엔 동무를 사랑하구, 동무의 곤난을 제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그런 착한 소년단원들에게 이 〈행동의 거울〉을 비치자.》

《그래!》

《강원도 회양군 송포 마을이 비쳤구나, 우산을 쓰고가는 저 두 동무들의 행동을 살피자.》

《웬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구나 좀 들어 보자.》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떠나려던 참인데 이렇게 데려다 줘서 고맙다. 집이 이 근처냐?—

—전 이 웃동네에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명자 때문에 일부러 10리'길을 왔단 말이냐?—

《어린 동생이라면 제동생을 돌보듯 한다고 늘 칭찬 받는 송포 중학교 3분단 한 은순 동무이구나.》

《네 몫은 우리들이 하마》

《평남 룡강군 애원 중학교 동무들이구나.》

《저렇게 둘러서서 무엇들을 하는 것일가?》

—자 이것으로 싸 매자.—

—안돼 그건 어제 산 손 수건인데 써 보지도 않은 걸 더럽히겠니—

—어서 싸매고 돌아가 약을 바르라 네 몫은 우리들이 하마.—

《음, 나무 뜨려 왔던 임 경옥 동무가 낫질을 하다 손을 벴구나.》

《그런데 새 손수건으로 싸매주는 앤 누구야?》

《그앤 동무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박 형자 동무야.》

동무를 위하여

《이번엔 〈행동의 거울〉을 황해 북도쪽으로 돌려 보자.》

《그래!》

《사리원시 구룡 중학교가 비쳤구나, 제 7 분단 동무들이야.》

—내가 데리고 가마—

—아니야 너희들은 구경을가, 내가 갔다 올게—

—분단 위원장은 있어야해, 내가 간대두—

《영화 구경을 가던 참이였구나.》

《음, 그런데 안 소단 동무가 갑자기 아파하니까 구경은 못해두 서로 자기가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거야, 저 동무가 분단 위원장 리 명순 동무와 정 춘자 동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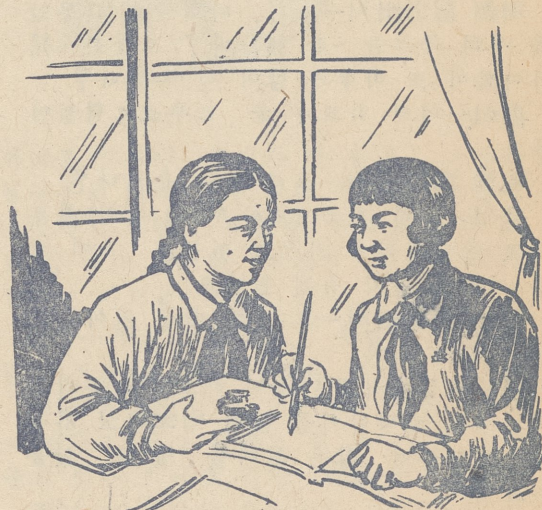
친절한 동무

《〈행동의 거울〉을 자강도 희천 고급중학교에 비쳐 보자.》

—인젠 알겠니?—

—응, 참 고마워—

《함 송자 동무가 일본에서 돌아온 전 순길 동무의 학습을 돕구 있구나.》

《그러기 순길 동무는 돌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로어도 잘하고 제일 어려운 대수, 력자도 동무들을 따라 갈 수 있게 됐대.》

분단의 선물

《야, 저것봐 무엇을 저렇게 운반해 가지고 가는 걸가?》

《저 대렬이 어데로 가나 살피자.》

—관리 위원장 아저씨! 이것은 우리 분단에서 모은 거름이예요.—

—웬 거름을 이렇게.—

—이 거름을 우리 분단 로 금자 동무의 어머니 몫으로 만들어 주세요.—

《음, 평남 덕천군 덕천 중학교 제 16 분단 동무들이구나, 로 금자 동무의 아버지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 놈들에게 학살됐어, 그래서 16분단 동무들은 금자 동무의 어머니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너희들도 그동안 몸 성히 공부들 잘 했느냐? 오늘은 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찾아 왔니?

춘식—여러 학교 식물 크루쇼크원들이야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무슨 문제냐?

춘식—우린 지금 《피마 5개년 계획》활동으로 실습지들을 가꾸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그거 참 좋은 일이군! 어서 물어 봐라.

춘식—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선 올해두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하면 많은 열매를 딸 수 있을가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작년엔 어떠했느냐?

춘식—좀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지 잎이 누른 색을 띄고 대가 약했댔거든요.

척척 할아버지—알만 하다. 그건 질소 비료가 적었기 때문이지.

화숙—우리 학교에선 질소 비료를 많이 주었는데도 수확은 적었어요.

척척 할아버지—그럴 수 밖에 너희 실습지의 것들은 잎과 줄기만 무성하구 열매는 충분하지 못했을 테지.

화숙—아이 정말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마치세요. 척척!

척척 할아버지— 하하… 그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구 내 얘기를 들어 봐라! 물론 질소 비료란 건 식물의 잎과 줄기를 싱싱히 자라게 하며 살찌게 하는 비료인 것만 틀림 없다. 그런데 이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지, 춘식이 네가 실패한 원인은 질소 비료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 온게고 화숙이네는 너무 많이 준 데 원인이 있다. 때문에 질소 비료는 식물의 종류와 자라는 형편에 따라 알맞춰 줘야 한단다.

춘식—알겠어요.

영일—할아버지 우린 학교 과수원을 가꾸고 있는데 하나 알고 싶은게 있어요.

척척 할아버지—과수원이라, 응 그래서?

영일—그런데 도마도, 수박, 사과들이 왜 그런지 곁가지들이 적고 맛이 좋질 않거든요. 비료두 많이 줬는데.

척척 할아버지—어떤 비료를 줬나?

영일—인분이랑 돼지 두엄 같은걸 많이 줬지요.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너희들이 비료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거야, 그런 과실 나무들엔 린 비료를 많이 줘야지, 이를테면 소뼈나 개뼈 같은 거지, 뼈에는 린이 아주 많단다.

영일—그럼 그런 린 비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린 비료란 건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 역시 잘 맺게 하면서 단 맛을 더 많이 주지, 올해는 린 비료를 많이 구해서 주도록 해라! 그러면 아마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만치 맛나는 열매를 딸 수 있을게다.

영일—할아버지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올 가을엔 할아버지게두 맛 좋은 실과를 선물할테얘요.

척척 할아버지—어디 두고 보자 하하…

창수—할아버지 제가 하나 묻겠어요.

척척 할아버지—넌 또 무슨 문제냐?

창수—난 함북에서 왔는 데 우리 학교 실습지에서는 주로 감자를 많이 심어요. 그런데 작년엔 어떻게 된 일인지 감자 알들이 정말 보잘 것 없게 되였거든요. 이건 무슨 때문입니가?

척척 할아버지—그래 너희 학교 실습지는 어떤 땅이냐?

창수—살찐 땅이얘요. 여겐 카리 비료가 좋다구 하길래 우린 개바닥 흙을 많이 파다 비료로 주었어요.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틀렸지? 개바닥 흙엔 염이 많은 카리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감자나 고구마엔 염이 (짠것) 없는 나무나 풀을 태운 재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자의 전분이 많아지며 알도 큰게 달리지.

창수—그건 어째서 그렇나요?

척척 할아버지—땅 속에서 자라는 감자 나무 같은 것들은 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런 식물들은 재 같은 류산

카리를 주어야 뿌리가 잘 뻗지, 그러면 영양분을 많이 빨아 들여 전분을 늘쿨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덮어 놓고 줄 것이 아니라 식물의 종류에 따라 알맞는 비료를 주어야 한다.

창수—정말 그렇군요. 우린 비료에 대한 지식을 더 잘 연구해야 겠어요.

척척 할아버지—옳다. 배운 것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해 보느라면 정말 쓸모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법이니라.

춘식—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한 건 비료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몰랐기 때문이군요.

척척 할아버지—아무렴!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건 이 세 가지 중요 요소들은 바로 자급 비료 속에 다 있다는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 자급 비료들을 더 많이 논밭에 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거란다. 이것은 바로 모든 곡식들을 많이 거두게 하기 때문이다.

춘식—할아버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린 올핸 실수 없이 실습지를 가꾸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척척 할아버지—잘들 가거라.

우리 학교의 자랑

여보세요.《소년단》편집부예요? 나는 평북 의주 중학교 대 위원장 리 화자예요.

네? 토끼들이 잘 자라는가구요. 그럼요. 겨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료를 먹여서 막 살이 졌어요.

지금 우리 학교 매 분단마다에는 어미 토끼 3마리씩 있답니다.

지금 학교에 어미 토끼가 모두 50 마리 있는데 올해엔 4,800 마리의 토끼를 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뿐인가구요? 아니예요. 우린 지금 모든 동무들이 집에서도 2 마리씩 기르기로 했지요. 이렇게 많은 토끼를 기르자면 사료가 문제지요. 그래서 지난 번 대 열성자 모임에서는 토끼가 좋아하는 여러가지 풀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련하겠는가를 의논했습니다.

지난 1월엔 분단 별로 콩깍지와 옥수수 찌끼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토끼들은 막 좋아서 야단이예요.

우리가 토끼우리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앞발을 높이들어 살창을 허비면서 양볼을 호물거리지요.

토끼 사양 크루쇼크원들은 소년 신문에 실리는《토끼 사양 크루쇼크원 수첩》을 오려내여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토끼가 좋아하는 풀이 이곳에 많은가구요? 네 많습니다. 식물 크루쇼크원들은 벌써 토끼가 좋아하는 풀이 많은 곳을 조사까지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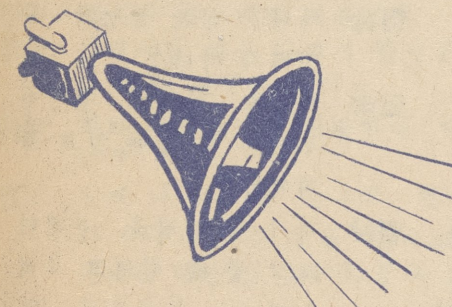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토끼가 좋아하는 풀씨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토끼우리 앞에 한 500평 남짓하게 토끼 풀밭을 일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건 우리가 키운 토끼로 올 겨울엔 절반 이상의 소년단원들이 모두 토끼털 외투와 모자를 쓰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때 가면 다시 알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자

오 은 렬

나오는 사람

영숙… 녀학생

영남… 남학생

영숙 얘 영남아 너 동지애라는게 어떤 건지 아냐?

영남 그것두 모를가 뭐.

영숙 한번 말해 봐.

영남 가슴이 막 찌르륵 하는 거지 뭐.

영숙 뭐? 가슴이 찌르륵 하는게 동지애야?

영남 그럼뭐! 영숙이 너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의 이야기 못 들었어? 적 포위 속에서 부상 당한 동지를 업고 손 발이 다 얼면서도 끝까지 구원한 이야기…

영숙 음! 나도 들었지.

영남 그래 그걸 듣구 너 무엇을 느꼈냐?

영숙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이야말로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가장 동지애가 깊은 분들이라는 걸 느꼈어.

영남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찌르륵 하지 않던?

영숙 가슴이 찌르륵 안 할게 뭐냐, 난 얼마나 감격 했는지 막…

영남 그것 봐, 그러니까 동지애란 가슴이 막 찌르륵 하는거 아니구 뭐야.

영숙 호호호…(웃고나서) 참 그래, 동지애란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처럼 동무를 귀중히 여기며, 동무의 슬픔과 기쁨을 자기의 슬픔과 기쁨으로 여기며 스스로 동무를 도와 주고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착한 마음씨를 말

하는 거지.

영남 (갑자기 배를 그러안고) 아이구 배야 아이구 배야…

영숙 엉? 아니 너 왜 갑자기 그러냐?

영남 배가 아파서 그래, 아이구 배야…

영숙 아유, 참 큰 일 났구나, 이걸 어떡한담? 가만… 자 업자.

영남 아이구 배야… (더욱 엄살을 부린다.)

영숙 애! 나를 붙잡아! 어서 병원으로 가자.

(영숙이는 영남이를 붙잡고 걸어 간다.)

영남 해해해… (재미 난다는 듯이 웃어댄다.)

영숙 (속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앤! 엉터리! (뿌리친다.)

(그바람에 영남이는 땅에 넘어져서 꿍하고 궁둥방아를 찧는다.)

영남 아이쿠! (일어 나면서) 너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영숙 그럼 네가 잘 했단 말이냐?

영남 난 네가 동지애가 뭔지 알긴 잘 알지만 정말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는 가를 떠보느라구 그랬는데 뭐.

영숙 그것도 옳지 않어.

영남 뭐가 옳지 않어?

영숙 동무를 속인다던가 또 동무를 믿지 않는다던가 하는 건 다 동지애가 없는 데서 그러는 거야.

영남 그렇다면 내가 잘 못했어, 앞으로는 너를 꼭 믿을게 응?

영숙 자기의 잘 못을 알았으면 됐어.

영남 자 그럼 내가 너를 꼭 믿고 부탁하겠는데 들어 주겠어!

영숙 음.

영남 내 숙제 좀 해 주렴.

영숙 뭐라구?

영남 숙제 좀 해달란 말이야.

영숙 안돼.

영남 안돼? 흥, 좋아 아주 동지애가 많은 것처럼 그러더니 너 동지애가 없구나 뭐.

영숙 그런 건 동지애가 아냐.

영남 아니? 남을 돕는게 동지애가 아냐?

영숙 숙제도 안하고 전달만 부리는 걸 돕는 것도 동지애야?

영남 내가 뭘 전달을 부린다고? 뽈 좀 찰려고 그러는데…

영숙 뽈을 차는 것도 숙제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거 아냐?

영남 혼자서는 힘들어 못 하겠는걸 뭐.

영숙 네가 하면 내가 도와 줄게…

영남 정말?

영숙 남이 어려워할 때 도와 주는게 동지애 아니냐.

영남 이야! 영숙이 너 제일이야! 나도 네가 어려워할 땐 꼭 도와줄게 응?

영숙 그래 고마워!

영남 만약 어떤 애들이 너를 때리려고 하거든 나한테 알려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가서 단단히 혼을 낼게.

영숙 지금 그런 몹쓸 애들이 어데 있나 뭐.

영남 글쎄 그런 애들은 없지만 그 비슷한 애들은 있지 않어.

영숙 어떤 애들 말이냐?

영남 남이 조곰만 잘 못하는 걸 봐도 걸핏 하면 비판 잘 하는 애들 말이야.

영숙 남이 잘 못하는 걸 보면 고쳐 주어야지 뭐.

영남 고쳐 주는 건 좋은데 비판까지 할 거야 없지 않어?

영숙 고치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영남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 않어? 더구나 친한 동무들 끼리…

영숙 친한 동무들끼리 비판하면 나쁜가 뭐?

영남 글쎄 나 같으면 안그래, 만약 네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대도 나는 절대로 비판 안 할테야, 두고 보지…

영숙 어째서?

영남 동무들 끼리 동지애가 있어야 할게 아니야.

영숙 비판하는건 동지애가 없는 건가 뭐?

영남 그렇잖구! 남을 망신시키는 것도 동지애야?

영숙 그게 왜 망신이냐? 잘 못한 일은 제때에 얘기해야 해!

영남 제때에? 그럼 너 나도 비판할래?

영숙 잘 못했을 땐 하지 뭐.

영남 야! 너 아주 사정도 없구나? 동지애란 조곰도 없구나?!

영숙 아냐, 동무들의 그릇된 태도를 보고도 남의 일같이 여기거나 결함을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는 건 동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영남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하고 충고를 주어야 한단 말이지?

영숙 그럼! 그게 진정한 동지애지!

영남 그렇다면 내가 너를 비판해도 좋지?

영숙 좋와!

영남 정말?

영숙 정말 아니구!

영남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숙 좋다니까, 어서 해!

영남 그만 두겠어.

영숙 아냐 그건 안돼 말할건 어데서건 해야 돼, 어서 말해 주어.

영남 안하겠어.

영숙 어서 해야 돼.

영남 비판할게 있어야 하지뭐…(사이) 아, 아니 있어, 있어…

영숙 어떤거냐?

영남 너 남의 잘못을 보면 꼭 비판해야 한다고 그랬지?

영숙 음, 그랬어.

영남 그런데 왜 날 비판 안하냐? 지금까지 옳지 않은 얘기만 했는데…

영숙 자기의 잘못을 제때에 느끼고 고치는 동무들에 대해서는 말할게 없다니까.

영남 그래!? 잘 알았어! 앞으로 나도 진정한 동지애를 가진 사람으로 될게 응?

영숙 좋아! 누구나 다 그렇게 돼야지 뭐….

—끝—

이것을 아십니까?

쏘련은 얼마나 넓지?

쏘련은 얼마나 큰지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없답니다.

레닌그라드에 저녁이 될때 추꼬뜨까 해변에는 새날 아침해가 돋지요.

국화의 조국

국화의 조국이 중국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 아름다운 국화 꽃은 지금으로부터 3,000 년 전부터 중국에서 가꾸기 시작했대요.

국화 가운데는 여러가지 모양과 색갈을 가진 꽃이 피는 《은룡》이라는 신기한 것도 있다는 것이예요.

산을넘고 들을지나
남 현 주 그림
아이구 엄마 목이 아파!
가시가 목에 걸렸으니 이걸 어쩌니?

우리가 무슨 수로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겠소!
여러분네들! 우리 앨 살려 주어요!

그 길은 멀고 험하단다
이애 병은 미루산 학 의사만이 고칠 수 있을거요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갔다올래요

그래도 난 가겠어요! 너구린 내 동무야요!
네맘은 착하다만 거길 어떻게....

부디 몸 조심해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꼭 학의사를 데려 올테니깐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구린 죽는다. 빨리 가야지!

나를 건너 주렴! 착한 동무 너구리가 앓고 있단다
이걸 이쩐담?
토끼야 토끼야 너 왜 그러니?
그것 안됐구나! 가만 기다려!

이건 다 네가 착한 때문이야!
거북아! 참말 고맙다!

산도 험하기도 하구나!

엄마!
으흐웅! 이놈! 잘 만났다

걸음아 날 살려라!
네놈이 어딜 빠지겠다구!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토끼야 토끼야 너 왜 그러니?

그거 안됐구나! 가만 기다려!
나를 건너 주렴! 착한 동무 너구리가 앓고 있단다

원숭이들아! 참말 고맙다!
아니 아니 이건 모두 네가 착한 때문이야

으흐응 놓쳤구나!

부엉이 아저씨 고마워요!
걱정말아 부엉! 학의사를 찾아주마 부엉!

선생님, 선생님! 우리동무 너구리를 구해 주어요!
용하고 착한 토끼야 걱정을랑 말아라!

선생님, 선생님! 참말 고마워요!
아니 아니 이건 모두 네가 착한 때문

입을 벌려라! 가시를 빼줄게
왕!

어서 어서 놀아보자 춤추며놀아 보자!
착한 토끼가 우리 아길 구했구나!

오락 놀아 보세요!

성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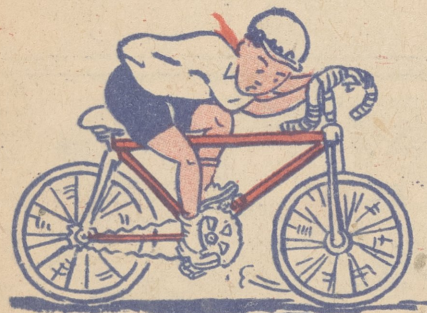
도 구

① 앞 뒤에 같은 표를 붙인 성냥 갑 1개
② 성냥 몇 가치

노는 방법

먼저 앞 뒤에 같은 표를 붙인 성냥 갑을 준비한다. 그리고 성냥 갑 속에 있는 성냥을 다 꺼내고 반대쪽에 한 줄로 성냥을 넣어 둔다.

노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한 성냥갑을 주머니에서 꺼내여 그를 반쯤 열어 빈 성냥 갑이라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시 닫는다. 그다음 《에잇!》 하고 소리 치면서 성냥 갑을 뒤집어 연다. 성냥이 가득 들어 있다. 한가치 꺼내여 불을 켜 보인다.

전호의 해답

완전한 자전거로 만들었습니다.

수건 만들기

도 구

① 빈 계란 1개 (계란 속은 뽑아 내고 수건을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도록 직경 1센치메터 정도의 구멍을 뚫어 둔다.
② 빨간 수건 1개 (4방 20센치메터 정도)

노는 방법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여 구멍난 쪽이 자기를 향하게 두 손'가락으로 들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계란이라는 것을 보인다. 두 손으로 계란을 싸쥐고 구멍으로부터 붉은 손수건을 천천히 끄집어 낸다. (이때 계란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된다). 수건을 거의 다 꺼냈을 때에 계란 구멍에 오른

손 엄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손 수건 오른쪽을 함께 쥐여들어 계란을 감춘다. 이것으로 끝내일 수도 있고 다시 두 손을 싸 가지고 손수건을 계란 속에 죄다 넣고 아까와 같이 계란을 들어 보인다.

이것을 아십니까?

거울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먼 옛날 기원전 3천년에 세상에는 처음으로 쇠로 만든 거울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발전하여 7세기에 이태리 사람들이 비로소 첫 유리 거울을 만들었답니다.

어서 물어 보세요

금자—영남 동무 안녕하세요! 나는 개천군 자작 중학교 대 4분단 위원장 김 금자예요. 분단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고 싶어 찾아 왔어요.

영남—네 좋은 의견이군요. 이야기 합시다. 분단 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분단의 운전수입니다. 운전수는 항상 기차의 기계'바퀴를 돌보며 목적지까지 틀림 없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운전수가 자주 기계를 살피듯이 분단 위원들은 항상 분단 동무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금자—참 그래요! 그런데 위원들은 어떻게 일을 나누어야 합니까?

영남—분단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분단 위원장은 위원들께 맡겨진 분단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가를 알아 봅니다. 그리고 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분단 모임과 위원회를 제때에 잘 가져야 합니다.

벽보 주필은 벽보 원고를 모아 제때에 벽보를 발행합니다. 그렇다고 벽보 주필 혼자서 제 마음 대로 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무엇을 낼 것인가를 분단 위원회와 벽보 편집 위원회에서 의논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혁명 전통, 학습, 연예, 체육, 독서, 위생, 《끄마 5개년 계획》활동 등으로 나누어 맡습니다.

그리고 매개 위원들은 반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항상 반장과 의논하며 반에서 일어난 일을 위원회에 제때에 알려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밖에 분단 계획에 따라 위원들은 다른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금자—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맡은 일이 너무 많지 않을가요?

영남—아니요, 분단 계획에서 맡을 때에는 본래 맡아 가지고 있는 부문을 맡고 반은 반 생활을 하면서 도우니까 별로 시간이 딸리거나 힘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자—네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달에 몇 번 정도 가지며 또 거게선 무엇을 의논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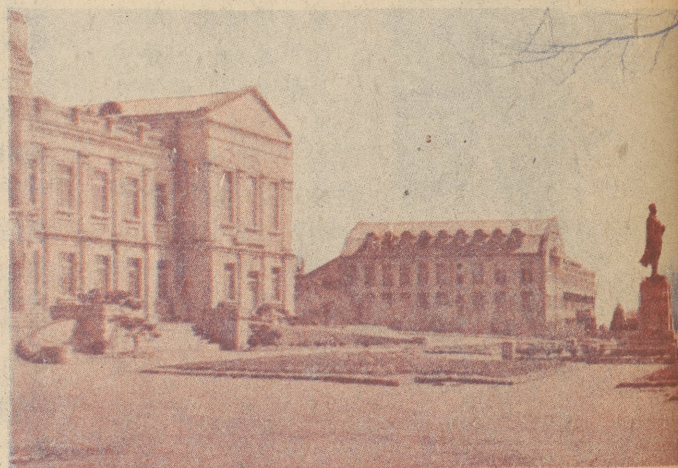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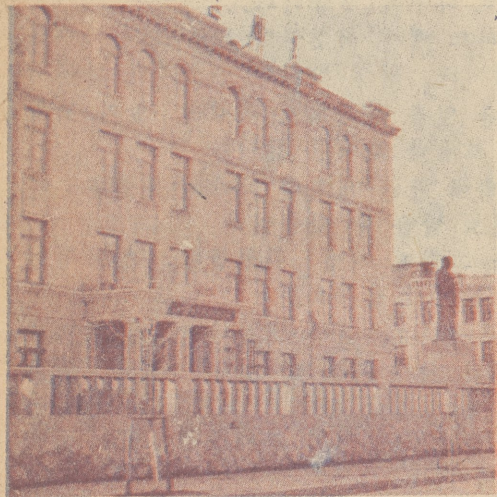
영남—보통 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 정도가 좋습니다.

위원회서는 모든 동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합니다. 즉 학습에 대하여 책임감을 높이며 흥미를 부칠 수 있는 모임, 행군, 견학, 상봉, 크루쇼크 발표회; 전람회 계획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반에서 복습과 숙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토의하며 시간중 규률있게 학습하는가를 토의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을 한꺼번에 보는 일은 힘겨울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는 한반이나 한 동무를 중심으로 보고 그의 좋은 경험을 전 분단에 모임이나 벽보를 통하여 알려 줍니다.

그리고 독서, 체육, 연예에 대하여 토의하며 분단 사업을 총화합니다.

금자—잘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아래에 소개한 사진에 대하여 대답해 보시오. 이 건물들은 어데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는대로 말해 보시오.

2호 현상 문제 해답

1, 평양시에 있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입니다.

2, 탑의 이름은 《조선 인민군 추모탑》입니다. 이 탑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인민의 영웅들을 추모하며,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불멸의 공훈을 후손 만대에 기리 전하면서 기념하기 위하여 1959년 2월 8일 유서깊은 평양 해방산 마루에 세웠습니다.

알아 마친 사람

함북	경성군	하면	중학교		최 동수
함북	김책시	쌍포	중학교		강 광수
함북	길주군	길북	중학교		김 동식
함남	신흥군	경흥	중학교		임 정빈
함남	광천군	금송	중학교		김 욱성
강원	법동군	마전	중학교		전 석호
강원	고성군	염성	중학교		김 문남
평양		피구	중학교	(인민반)	신 철수
평양		승호	중학교		김 성수
량강	혜산시	선후	중학교		김 영숙
량강	혜산시	혜산	중학교		김 춘걸
자강	희천군	희천	고 중	(인민반)	우 경희
자강	자성군	법동	중학교	(인민반)	왕 관순
자강	화평군	화평	중학교		강 만식
평북	철산군	장송	중학교		리 경식
평북	구장군	수구	중학교		임 찬화
개성	개풍군	광답	중학교		백 용종
황북	서흥군	서흥	인민 학교		김 계순
황북	곡산군	고성	중학교		차 두선
황북	연탄군	풍답	인민 학교		리 상근
평남	개천군	인흥	중학교		김 창대
평남	온천군	서화	중학교		박 명구
평남	안주군	안주	초등 학원		장 봉길
황남	청단군	덕달	중학교		박 상원
황남	송화군	포구	중학교		여 풍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4 호 (총 126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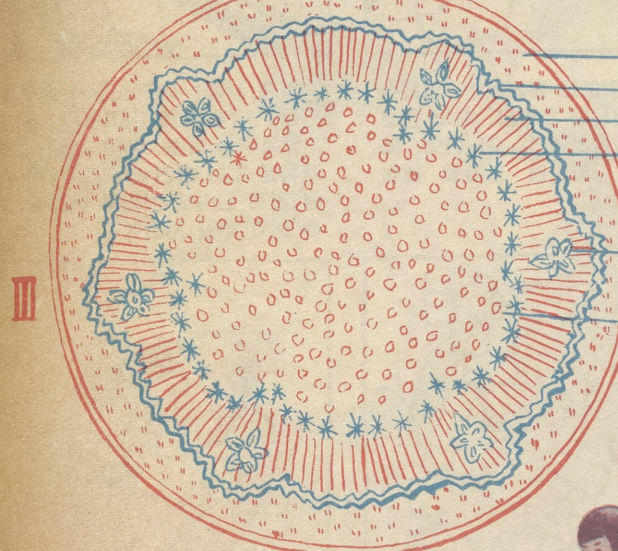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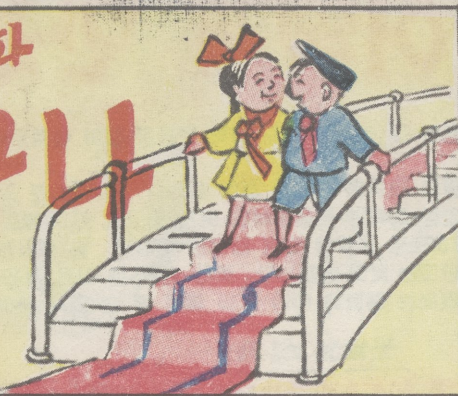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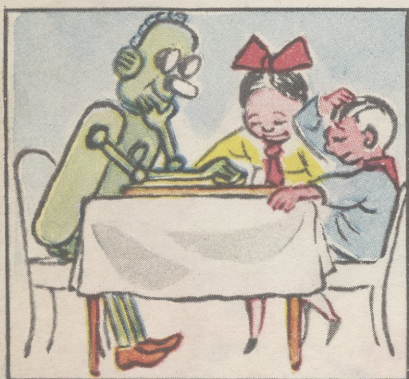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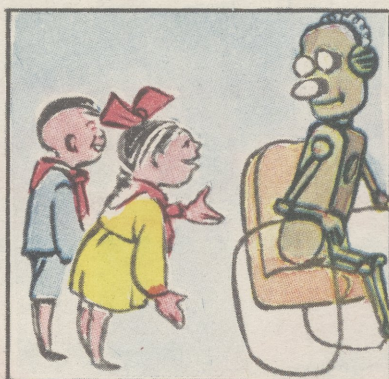
ㄱ—31114 값 25 전 150,000부발행

꽃밭을 어떻게 만들가요?

봄이 왔어요. 동무들은 올해도 학교와 집 주위에 가지 각색 꽃들을 많이 심겠지요? 그럼 꽃밭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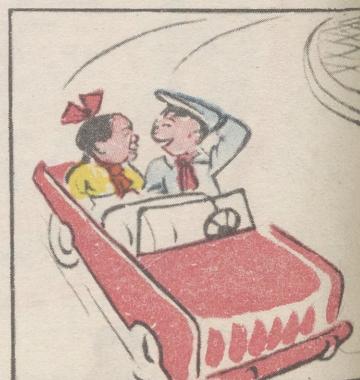
꽃밭은 만들 장소에 따라서 그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교실 창문 앞이나 길'가에 만드는 꽃밭은 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꽃밭은 한쪽에서만 보게 되므로 키가 높은 꽃은 뒤에 심고 앞에는 점점 키가 낮은 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꽃밭을 만들 때에는 꽃밭이 잘 보이게 하기위하여 꽃밭의 가운데를 좀 더 높이 만들어서 볼록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꽃도 키가 큰 것은 가운데 심고 점차 키가 낮은 꽃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꽃밭에 꽃을 심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계속 꽃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색갈도 서로 조화가 맞게 꽃 종류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꽃밭의 설계도

아동 궁전에서 외국 소년들과 이야기를 끝낸 순남이와 영옥이는 이번엔 어데로 가 놀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순남—우리 오락실에 가서 장기놀이를 하자.
영옥—응, 음악실에 가서 노래도 배우구…

순남이와 영옥이가 오락실에 들어섰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순남—동무가 있어야 장기를 두지.
기계 사람—나 하구 장기를 두지 않겠습니까?

기계 사람—장훈이…
순남이는 그만 기계 사람 한데 장기놀이에서 지고 말았다. 약이 올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시험을 했지만 끝내 지고 말았다.

음악실에 들어간 순남이와 영옥이는 음악 선생님을 찾았다. 음악 선생님은 기계 사람이였다. 순남이와 영옥이는 기계 사람더러 노래를 배워 달라고 부탁했다.

기계 사람—무슨 노래가 배우고 싶으냐?… 어서 말하렴.
영옥이가 요즘 새로 나온 노래의 제목을 하나 불러 댔더니 기계 사람은 척척 피아노 건판을 누르며 노래를 배워 주기 시작했다.

영옥—오늘 아동 궁전에서의 생활은 참 재미 있었어.
순남—난 그 기계 사람하구 장기놀이해서 진 생각을 하면 막 분하다.

영옥이와 순남이는 자동차를 부르기 위해 우편국에! 갔다. 우편국 교환은 기계 사람이였다.
순남이와 영옥이가 전화를 청하자 기계 사람은 척척 전화를 대여 주었다.

순남이와 영옥이는 자동차를 탔다.
순남—우리는 아동 궁전에서 훌륭한 기계 사람들을 보았구나.